

제 10 강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 - 교회와 하느님 나라

9강 복습

- 은총에 응답하는 일상
- 삶의 자리
- 기도
- 성서
- 영성
- 제자되기

어느 덧 10번의 강의를 마무리 할 때가 되었네요.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일찍 마치고 뒷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로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난 주에는 하느님의 주신 은총으로 일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수행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내용들이지요. 기도와 성서, 영성, 수행 그리스도교에 관해 여러분들도 나름 생각이 있고, 또 열심히 실천도 하셨을테니까요.

오늘날처럼 시끄럽고, 분주한 세상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무엇보다 고요의 경험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은총이 아닐까 합니다. 고요에 머무르며 나의 삶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내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깨닫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그것 자체가 참으로 큰 은총이자 감사한 일이지요. 한병철 교수의 <시간의 향기>라는 책을 보면 오늘의 현대인들은 파편적인 시간을 살아서, 시간들이 쌓이지 못하고, 또 연결되지 못하여 계속 허무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먹고 사는데,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풍성한 의미로 가득 찬 시간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성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교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성서를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하되, 다양한 성서 읽기 방법론을 통해 오늘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 그리스도교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성서해석과 성경공부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으니, 그것도 살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윤리 교과서나, 문학책이 아니라 내 존재를 건드리고, 삶의 방향과 자세와 태도에 하나의 빛으로 다가 오는 경험들이 많으시면 좋겠어요. 성서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 체험의 질도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와 성서

읽기는 모두 여러분의 몫이지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 있는 체험이며, 나를 뛰어 넘는 것이며,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지적, 감정적, 의지적 요소들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균형 감각을 잃지 않으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기도와 성서 읽기를 꾸준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일상에서의 낯선 경험과 타자와의 만남에 두렵없이 나서야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 나를 더욱 깨닫고 내 존재를 통해 일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이제 일상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매일매일의 일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 주 주일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교회력에 따라 자신을 훈련시켜 갑니다. 아침, 한낮, 저녁기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성서를 읽으면서 예수의 삶을 따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합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면서 다시 성서를 보고 기도를 하면 이전에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13장을 읽었을 때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는 다른 동양종교에서 하는 절 수행과 같은 몸 수행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노동, 이웃을 위한 헌신 모두가 일종의 몸 수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몸 수행의 자리입니다. 폐쇄 수도원이나 세속을 떠나 기도와 노동을 전문으로 하는 수도사들도 계시지만 이 세상에서 보통의 삶을 사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은 매일 매일의 삶이 바로 몸 수행일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과 자세, 성서를 읽는 훈련, 타인을 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느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해내는 것 모두가 바로 몸 수행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대로 평생을 훈련해도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궤도를 향하여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자신이 변할 뿐 아니라 이웃도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체험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지난 주 강의 복습을 마치고요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강 교회와 하느님 나라



그림출처, <http://www.church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921>

오늘의 주제는 “교회와 하느님 나라, 세상을 소란스럽게 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향린교회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교회가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교회는 어땠나요?”라고 되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어린 적 시절 교회를 다니게 된 날부터 이후의 교회생활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저의 경우는 교회가 무척 재미있었지요. 형, 누나 동생들과 함께 성경학교와 수련회, 찬양의 밤 같은 것들을 한 기억도 있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교회 어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럼 교회는 필요하겠네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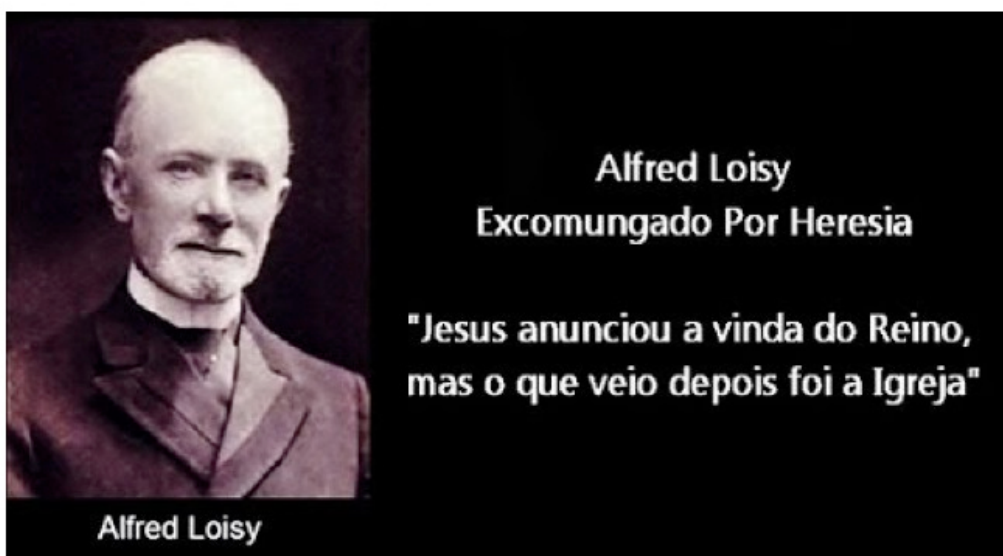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 향린교회 교인들이 많이 계시니 만약 향린 교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000: 저에게는 교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닐 때는 마음이 편하고 안정적이에요. 힘들 때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할 때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더라고요.

<어린이의 다섯가지 중대한 질문>이라는 책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하는 질문 중에 “내가 맘놓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느님과 관계 있는 질문이라고 해요. 그렇지요 교회가 맘 놓고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지요. 물론 요즘에는 교회도 교회나름이라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기부도 하고, 또 교인들이 일반인들보다도 더 잘 베풀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는 좋은 곳이고 이 세상에 필요하기도 하지요. 칸트의 경우는 인간이 도덕적 행동을 하려면 반드시 하느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도덕적 선택을 해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커지도록 반드시 함께 해야 하고 그래서 교회가 요청된다고 했지요.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



그림출처, <http://www.vejavideo.net/v/cWVPr-QJL5s>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 보니 교회는 나름 존재 이유가 있군요. 그런데 원래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 생긴 것일까요?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프랑스에 알프레드 로이지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 분이 <복음과 교회>라는 책에서 교회에 대해서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러나 나중에 뒤에 온 것은 교회였다.”

신부님께서 이 말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본질은 하느님 나라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시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교회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어서 불변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때 그 때 따라서 하는 일과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무런 기준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공생애 동안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 계획적으로 어떤 선택된 자들의 공동체를 소집하여 제도나 조직을 결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른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 즉 하느님 백성 전체를 새롭게 한다는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즉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세우려 하기보다 그가 선포한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나자렛 예수를 기억하며 모였고 이렇게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 건물이 아니고,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은 시대적 상황과 사명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모인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결정적으로 하느님을 뵈었다는 고백에 근거하여 “하느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삼았습니다. 따라서 처음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치나 지배자들의 말을 듣기 보다 하느님의 말씀에 복종하였고(사도행전 4:19, 5:29 참조),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께서 하셨던 하느님 나라 운동에 헌신하였지요(마태 4:17, 10:1). 따라서 교회는 mammon과 권력의 노예로 사는 불의한 세상에 대항하여 정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하나의 대안적 공동체였고, 언제 어디서나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에 따라 교회는 전통적으로는 “하느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공동체”라고 불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때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하느님의 백성의 모임으로 교회는 하느님 말씀에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눈치를 보거나 유혹에 넘어가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진정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찾아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 이유도 가장 기본적인 이 토대에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종교생활을 현세에서의 출세와 성공, 물질적 축복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신앙의 눈으로 본 세계와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 보편적 가치 추구를 상실케 하였습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채우는 것을 넘어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이기적인 탐욕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정당화시켰고, 물질의 축복을 신앙의 크기와 연결시킴으로써 비윤리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의 축복인양 가르쳐 왔지요. 이리하여 한국교회는 mammon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인들의 삶과 가치의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축복을 위한 도구로 전략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의 기복주의는 한국의 전통적인 무교의 영향과 미국 교회로부터 수입된 소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교회 성장주의와 번영의 신학의 영향이

한 짝을 이루어 형성되었으며, 이런 기복주의적인 경향은 한국 전쟁 이후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도입과 군사 독재 하에서 경제 개발과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그 시대적 정당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인들은 교회의 예언자적이며 도덕적인 사명을 방기한 채 기독교의 신앙행위를 물질적 부와 현세적 성공을 이루는 주술적 행위로 받아들이고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¹⁾ 아무튼 한국교회는 빨리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둘째 대답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밝힌 대로 예수가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 위에 즉 예수 때문에 생겼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한 인격에 모든 것을 걸었다면 그 공동체가 그 인격과 얼마나 닮았느냐가 그 공동체의 완성도의 기준이 되지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가 행했던 가르침과 선교를 오늘의 시대에 재현해야 하는 사명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였으며 그는 무엇을 하였나요?²⁾ 지난 2강 “예수는 그리스도인가”에서 이 부분을 다뤘지만 여기에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느님의 통치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는 강하고 자애로우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분이 오시면 모든 가치들이 뒤집힐 것인데, 인간으로 취급 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맨 윗자리를 차지할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선포는 큰 걸림돌이고 하느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만의 방식으로 실천하였는데, 먼저 그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그의 부름에 응답했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들과 집, 그리고 직업과 마을을 떠나 예수를 중심으로 형제와 자매가 되어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수는 그 당시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죄인들과 교류했으며,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직접 만지면서 그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또한 병을 죄의 형벌로 보는 신념체계를 부정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였습니다. 문둥병이나 다른 병으로 인해 마을로부터 추방되는 자들을 치유함으로써 그들이 다시금 다른 사람들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도록 하였고, 인간을 사로잡은 귀신을 내쫓고 악의 세력과 싸웠습니다.

예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과 두루 관계를 맺었는데,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빵과 음료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마련한 식탁에 죄인들과 세금 걷는 자, 매춘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던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포함시켰고, 그들은 예수의 설교를 듣고 난 후 함께 빵을 뜯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 받고 용서 받은 후에 서로 그들의 회복을 기뻐하며 빵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예수와 함께 결코 함께 앉게 되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과 한 식탁에 앉아있는 자신들을 발견했고, 그래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엄성과 평화를 되찾게 되었다는 깊은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참된 자신을 찾게 되었고, 이런 경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통치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 할 수 있지요. 예수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율법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1) 이학준,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새물결플러스, 2011), 71-74.

2) Elizabeth A. Johnson, *Consider Jesus* (New York: Crissroad, 1990) 49-61.

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7-39)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 주는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율법학자들과 대치하면서도 스스로 자유롭게 하는 삶을 창조하였고, 하느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는 길어야 3년, 혹은 겨우 몇 달간의 공적활동을 하다가 한창 피어나야 할 30대 초반의 나이에 제자와 추종자들에게 배반당하고, 적대자들에게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과 인간들에게 버림받은 채, 가장 치욕스럽고 잔인한 처형방식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매개물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누리던 종교권력자들의 눈에 밟혔고, 식민지를 통해 배를 불리던 로마의 권력에 위협한 인물로 비쳐졌기 때문이지요. 역사적인 접근에서 볼 때 예수의 죽음은 우연적 사고가 아니었고, 그의 사역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의 설교와 활동은 종교적 지도자들, 유대 전통과 충돌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은 로마지배 하에 있는 유대사회를 위협하게 만들 정치적 불안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커스 보그에 의하면 예수의 재판 장면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는 사회적 예언자로서 당시의 지배체제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였기 때문에 처형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의 왕국에 반대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입각한 대안적인 사회적 비전을 펼쳤기 때문에 처형되었습니다. 당시의 지배체제는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예언자로서 살해하였습니다.³⁾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은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예수는 부활합니다. 부활한 존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되었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을 것이며,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고전 15:17-19) 그런 이유로 인해 모든 것이 바로 부활에 달려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연히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고, 그가 고집스럽게 행해왔던 사역 때문에 죽었고 그 때문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런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재현해야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활동을 한 줄로 요약하라면 그것은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 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줌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전하고 실천했던 하느님 나라의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정의는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단순히 인간들의 친목 모임이나 이데올로기적 이념의 공동체에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교인들간의 사귀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다고 하시는데, 그 말은 예수님을 중보자나 매개자로, 즉 내가 저 교인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론 너무 미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분을 중보자로 하여 사귀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예수 얼굴 보고 참는 것일 수도 있지만 교인들이 궁극적으로 예수의 헌신과 그 사랑을 체화한다면 그 무엇이라도 포용하고 너그럽게 안을 수 있겠지요. 그럴 때 공동체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들판이나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신 예수처럼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사람도 없으며, 그 한 영혼을 찾아야 공동체가 완성된다는 생각이 교회에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내어주며 베푸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3) 마커스 보그 & N. 톰 라이트, 『예수의 의미』, 김준우 역, 한국기독교연구소, 2001. 153-154.

지금까지 교회의 정체성, 즉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 볼까요!

교회의 역할

- 예배
- 선포
- 교육
- 봉사
- 친교



그림출처, <http://news.ichannela.com/inter/3/02/20131212/59494556/2>

2013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이 분의 행적이 요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지요. 교회가 이 교황처럼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 교회 또한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들을 것입니다.

자! 위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며, 성령의 공동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써의 공동체라 하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그럼 무엇을 하나요? 전통적으로는 5가지의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역할의 첫째는 예배입니다. 유대교에도 예배가 있고, 모든 종교에는 그 나름대로의 의례가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죠. 그런데 기독교 전통은 예수님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행됩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없지요. 세상에서 일주일동안 잘 지내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모두 한 예배 공간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 예수에게 드러난 하나님을 만납니다. 들리는 말씀(설교)과 보이는 말씀(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 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정신을 우리 몸에 새겨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자로 세상에 파송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정신과 구성요소와 진행,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 등 함께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이 주제만 가지고도 몇 주 동안 강의를 해야 하기에 여기서는 예배의 핵심만 말씀 드리지요. 여러분들은 매 주 예수를 다시 만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기도와 찬양, 말씀봉독과 선포, 봉헌과 성만찬, 이 모두가 예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에게 드러나신 하나님과 하나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하나님을 쓰여진 말씀인 성경에서, 그리고 육화된 말씀인 예수에게서, 그리고 선포된 말씀인 설교에서 만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통에 의하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이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씌여진 말씀인 성경을 앞에 두고 목사와 교인들이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내는 것을 설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많은 준비를 해서 거의 일방적으로 얘기하지만, 주일의 본문 말씀을 미리 생각하고, 들리는 설교를 자신의 삶에 맞게 녹여서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인 설교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역할은 교육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을 성찰함과 동시에 그것을 후세대에게 전수하고, 또 알고 배운 대로 삶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모든 노력이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 교인들은 성서를 꽤 열심히 읽고 성경공부반도 잘 만들고 하는데, 그런 모임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을 늘 되새기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앵무새가 반복하듯이 무의미하게 맹목적으로 성서나 교리를 교육하기 보다, 오늘날의 우리 일상생활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성찰하고 실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교회의 네 번째 역할은 봉사입니다. 디아코니아(봉사)는 기본적으로는 세상을 위한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흔히 교회 내 봉사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불의를 고치고,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씻어내기 위한 모든 헌신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강조하였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구제도 열심히 하고, 구조의 변혁을 위해서도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다섯 번째 역할은 친교입니다. 위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교회안에서의 친구는 단순히 너와 내가 친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더 높은 차원에서의 친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사귀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잘해 준 사람만 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 넘고, 심지어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친교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위적인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본질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짚 훑고 나니, 교회의 좌표 설정이 되셨나요? 그럼 이런 좌표 속에서 한국교회를 한 번 살펴 보지요. 왜 한국 교회 특히 개신교는 세상으로부터 외면 받는 것일까요? 그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음에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일까요? 여러분 모두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이제 각자가 진실로 실천하면 될 것입니다.

첫째 한국교회는 하느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무교적 영향 속에서 세상의 물질적 유익만을 구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러하셨듯이, 완벽한 사랑의 근원이신 절대적 타자로부터 오셔서 인간이라는 타자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신 것처럼, 그런 예수를 잊지 못해 생긴 교회 또한 이 세상을 위하여, 타자를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래 자리로 가는 것을 세속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세속에 물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치, 경제, 문화, 생태 환경의 문제에 대해 교회는 말해야 하고, 지구인에게 닥쳐 오는 곤경을 함께 풀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안고 탄식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온 피조물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국교회가 가야할 길

- 정체성 회복
- 타자를 위한 존재
- 세속주의 탈피(세속화)
- 성서 문자주의 극복
- 민주적 교회 운영
- 신학, 신앙, 삶의 일치



그림출처, <http://www.bluelog.kr/655>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서 문자주의의 극복 아닌가 합니다. 성서의 저자가 의도한 것을 너무 왜곡해서 읽고 있고, 성서의 말씀이 오늘 이 땅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찰하는 것을 문제시하는 문자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성서 문자주의를 벗어나려면 성서의 형성과정과 성서를 읽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이 성서를 제대로 읽는 날, 한국교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가 바뀌기 위해 교회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적 가부장주의의 문화 속에서 교회도 어른 남성들 몇 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당회가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가 만연해 있는데, 교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은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같은 단체에서 만든 교회 정관이라든가, 민주적 운영 방식 등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온 교인이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연습을 할 때 목회자에게 치중되는 다양한 업무도 나누고, 교인의 성숙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신앙과 신학, 신앙과 삶의 괴리를 좁히는

일이지요. 신앙과 신학이 서로 나뉘라라 할 때 신앙은 맹목적인 우상숭배로 흘러가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처럼 되고, 신앙과 삶이 괴리가 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가 되어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별 반 다를 것이 없으면서도 입만 살아 나불거리는 울리는 팽과리가 됩니다. 신학과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 스스로 과제로 생각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학-인문학 강좌에 참석하시는 것도 좋은 훈련과 공부가 되겠지요.

다시 시작되는 하느님 나라

-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 요한복음 5장 20절, 14장 12절.
- 사도행전 2장 47절, 5장 29절, 17장 6절



그림출처, <http://www.insightofgscaltex.com/?p=32545>

결국 교회가 제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 나라는 다시 시작되는 것이지요. 새롭게 확장 되고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유교 경전인 대학(大學)의 한 구절을 여기 썼는데요. 결국 평천하(平天下)의 문제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격물(格物)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대상을 다루거나 사건에 대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사물에 대해서 물어 진정한 앞에 이르고, 내 뜻과 진실을 다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고 가정을 살피고 나라를 경영하는 것, 이런 모든 과정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면 요한복음 5장 20절이나 14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세상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누구 눈치를 봐야 합니까?(행 5장 29절)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살다 보면 세상의 칭송도 들을 수 있고(행 2장 47절), 세상에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행 17장 6절)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교회가 해야 할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때로는 과감하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난 10주 동안 저와 함께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강좌는 아마 가을에 열릴 것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공자, 묵자 그리고 예수”라는 제목으로 개설할 생각입니다. 지난 강의들 모두가 길목 홈페이지에 있으니 그것을 참고 하시면서 복습도 하시고 자신들의 신앙을 재 점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단히 정진하여 얕이 삶으로, 머리에서 이해된 것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손과 발에서 피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고문헌

- 한스 쿡, <교회>, 한들출판사, 2007.
 본 회퍼, <성도의 교제>, 대한기독교서회, 2010.
 김진호, 조헌정 외, <자유인의 교회>, 한울, 2013.
 로빈 마이어스, <언더 그라운드 교회>, 한국기독교연구소, 2013.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대한기독교서회, 1995.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한들출판사, 2006.
 한국조직신학회, <교회론>, 대한기독교서회, 2009.
 이학준,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새물결플러스, 2011.
 필립 클레이튼, <신학이 변해야 교회가 산다>, 신앙과 지성사, 2012.
 R. 슈나켄부르그, <하느님의 다스림과 하느님 나라>, 가톨릭출판사, 2002.
 안선희, <예배 돋보기>, 바이북스, 2011.
 조기연, <묻고 답하는 예배학 Café>, 대한기독교서회, 2009.